



호날두, 유벤투스 100호 골 폭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에서 '100호 골'을 터트리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호날두는 13일(한국시간) 사수올로와의 세리에A 36라운드 경기에 출전, 전반 45분 추가 골로 3-1 승리에 앞장섰다.

다시 '괴물본색'

류현진 애틀랜타전 7이닝 1실점 3승
 부상 복귀 후 연습 몸 상태 우려 불식
 타석에선 두 차례 모두 헛스윙 삼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올 시즌 개인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시즌 3승(2패)을 거뒀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출전해 7이닝 동안 5피안타(1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3.15에서 2.95로 끌어내렸다.

그는 2-1로 앞선 8회 초 공격에서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토론토는 4-1로 승리했고, 류현진은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7이닝 이상을 책임진 건 지난달 8일 텍사스 레인저스(7이닝 2실점)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부상에서 복귀한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연속 경기 승리를 기록하며 몸 상태에 관한 주변의 우려를 완전히 잠재웠다.

류현진은 이날 2회와 7회를 제외한 때 이닝 출루를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

그는 1회 2사에서 마르셀 오수나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 오지 앨비스를 내야 땅볼로 처리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2회엔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삼자 범퇴로 막았다.

류현진은 3회 1사에서 상대 선발 투수 맥스 프라이드에게 우전 안타를 내줬는데, 이후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와 프레디 프리먼을 공 4개로 잡아내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5회에 첫 실점했다. 선두타자 콘트라라스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내줬다.

침묵하던 토론토 타선은 6회 초 동점을 만들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2사 2루 기회에서 마커스 시미언이 좌익선상 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6회 말 2사에서 오스틴 라일리에게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허용했는데, 후속 타자 스완슨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다시 위기를 벗어났다.

토론토는 7회 초 선두 타자 테오스카 에르

난데스의 우월 역전 솔로 홈런으로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류현진은 7회 말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세 타자를 모두 뜬 공으로 처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총 94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30개), 체인지업(25개), 컷패스트볼(22개), 커브(17개)를 골고루 던졌다.

토론토는 2-1로 앞선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에르난데스가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에 쉼표를 박았다. 에르난데스는 이날 3타수 2안타(2홈런) 3타점을 쓸어 담으며 류현진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내셔널리그팀의 홈 경기로 열려 지명타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9번 타자로 나선 류현진은 3회와 6회 각각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연습



김하성은 치고 흠치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13일(한국시간)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 더블헤더 1차전 경기에서 2회 초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연습

콜로라도와 더블헤더 선발 출전 2루타 포함 2안타 1도루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더블헤더 1·2차전에서 모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안타를 생산했다.

1차전에서는 내야 안타에 이어 도루를 성공했고, 2차전에서는 장타(2루)를 쳤다.

김하성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퍼스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

문 경기 더블헤더 1·2차전에서 6타수 2안타 1도루로 활약했다. 두 경기 모두 3타수 1안타를 쳤다.

2차전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0-0이던 2회 초 2사 1루, 상대 좌완 선발 오스틴 고퍼의 시속 150km 직구를 공략해 우익수 쪽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다. 타구 속도는 시속 101.1마일(약 163

km)이었다.

콜로라도 우익수 찰리 블랙먼이 공을 한번에 잡지 못하자, 김하성은 재빠르게 3루까지 달려갔다. 기록은 우익수 쪽 2루타에 이은 우익수 포구 실책이었다.

김하성은 더블헤더 1차전에서 2회에 안타를 쳤다. 김하성은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1차전에서 2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첫 타석에 들어서서 상대 우완 선발 존 그레이의 초구 시속 151km 직구를 건드렸다.

공은 느리게 굴렀고, 콜로라도 유격수 트레버 스토리가 달려왔으나 공을 잡지 못했다. 내야 안타로 출루한 김하성은 곧바로 2루 도루에 성공했다.

4월 17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이후 26일 만에 나온 시즌 2호 도루다.

1차전에서는 샌디에이고가 콜로라도를 5-3으로 꺾었다.

2차전에서는 콜로라도가 3-2 승리를 거뒀다.

연습



SINCE 1991. 5. 15.

30th ANNIVERSARY

공군 제19전투비행단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TH FIGHTER WING



올해로 비행단 창설 30주년을 맞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1991년 창설 이후 명실 공히 조국 영공수호의 핵심전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비행단은 전 부대원이 일치 단결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